



# 테트라팩의 친환경 패키징-4R을 중심으로

Tetra Pak's Eco-Friendly Packaging

차 제 영 / 테트라팩 차장

## 1. 서론

사회가 발전되면서 포장재 폐기물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시민단체 및 기업들에서 모든 관심과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시 되고 있다.

테트라팩은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라는 모토 아래에 포장재 내부의 음료 뿐만 아니라 사람, 환경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테트라팩 환경 부서에서의 핵심 활동은 3R (Reduce, Reuse, Recycle)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Responsible)을 더하여 4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R에 대하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 Renewing(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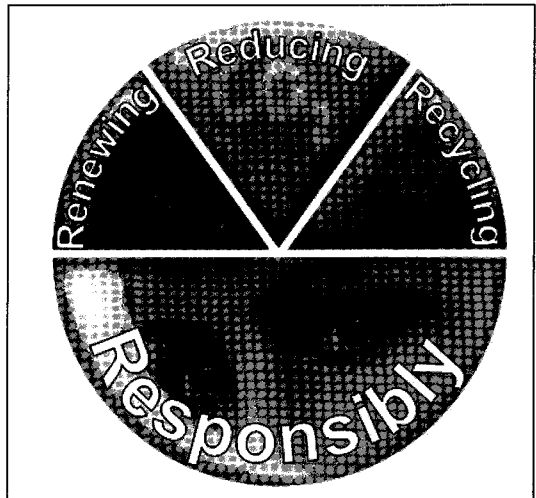
테트라팩에서 생산, 공급하는 종이 포장재의 주원료는 75% 이상이 종이로 구성된다. 종이의 원료인 산림을 단순히 벌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산림관리 단체

인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등을 통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향을 검증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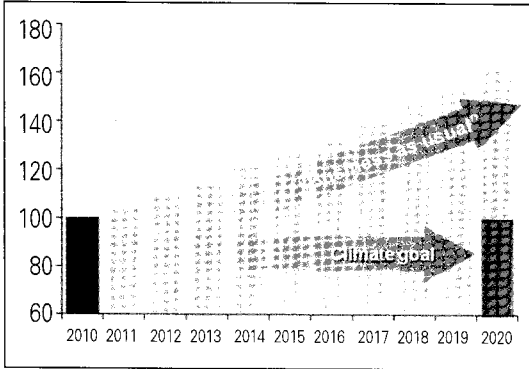
### 1. 추적성(Traceability)

종이팩으로 생산되는 원지가 생산되는 숲까지의 추적성을 투명하게 하여 산림의 불법적인

[그림 1] 4R



[그림 2] Global Carbon Footprint index Tetra Pak



별목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80%의 목재, 펄프를 WWF로부터 “chain of custody” 검증을 받은 숲에서 나무 자원을 얻고 있다.

## 2. 산림관리(Forest management)

산림관리의 경우는 산림 뿐만 아니라 그안의 생태계 보존에 대하여 까지 면밀히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100%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테트라팩은 2010년까지 전체 원지 사용량의

[그림 3] 탄소성적표인증 획득



[그림 4] 2011년 4월 12일 정목초등학교



[그림 5] 2011년 5월 17일 효제초등학교



4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FS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전체 원지 사용량에 대한 FSC 인증을 준비 추진 중에 있다.

## Reducing(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환경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테트라팩에서는 2005년도에 이미 WWF의 Climate savers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절대량으로 12.9%를 감축하였으며, 이는 애초 공언하였던 10%보다 더 많은 감축량이다.



[그림 6] 에코트리캠페인



2010년 3월 31일 육군 26사단

2011년 4월 5일 육군 27사단

이는 테트라팩 자체 포장재 생산공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그린에너지 사용을 늘림으로써 이루어낸 결과이다.

한발더 나아가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0년 수준(40%, Business As Usual)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는 테트라팩 자체 탄소 배출량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고객사 및 재활용 등 포장재와 관계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22일에 국내 식음료 포장업계 최초로 획득하였다.

### Recycling(자원의 재활용)

환경에서의 재활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테트라팩은 전세계의 각 국가, 환경 담당자들에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재활용 홍보를 통한 종이팩의 수집 및 재활용률 증대, 재활용 업계로의 기술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되

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제도에서 종이팩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홍보하고 있다.

EPR 제도란, 최종 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종이팩 재활용의 홍보등을 담당하고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의 회원으로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포함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기반 구축, 국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및 녹색성장체험관 교육실과 더불어 수도권 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환경 및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연간 5,000명 이상의 초등학교생들이 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테트라팩 포장재의 구성을 보면 종이, 알루미늄

[그림 7] 울산 제4회 그린스타트전국대회



늄 포일,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종이 포장재의 종이 즉 펄프를 가지고 화장지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포장재에서 펄프를 제외한 잔유물(알루미늄 포일 및 폴리에틸렌)에서 알루미늄 포일과 폴리에틸렌을 별도 분리하여 각각의 원자재로 재활용 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잔유물에서 알루미늄만 별도로 분리하여 순도 97% 이상의 알루미늄을 만들어 내는 연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테트라팩 포장재도 거의 대부분이 종이는 펄프로,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 피로, 폴리에틸렌은 열회수를 통하여 100% 재활용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Responsibl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의 WWF, Global Compact, Gain, IOF 및 GCNF 등 여러 NGO 단체들과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에코트리 캠페인, 탄소성적표지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